

파견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

파견대학	국가	프랑스
	대학명	보르도 몽테뉴 대학교
파견기간	2024 년 1월 ~ 2024 년 12월	
프로그램	<input type="checkbox"/> 정규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기제 ※ 파견대학 수학 전공: 프랑스어 어학과정	

1. 출국 전 준비사항

가. 유학생 보험, 비자, 항공권

유학생 보험은 원래 제가 들고 있던 보험 회사의 해외 장기체류 보험을 들어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고, 다른 유학생 분들이 많이 준비하시는 보험 네이버 블로그 등에 잘 나와 있으니 그걸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.

비자는 제가 2학기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왔고, 방학 때 잠시 한국에 있었어서 총 두 번의 학생비자를 받았었어요. 사실 비자를 그대로 연장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 기간을 놓쳐서 두 번 준비를 했었습니다. 비자 관련해서는 1. 우선 서류비용들이 약 40만원 정도 2.두번의 형테부가 있을 텐데, 첫 번째 캠퍼스 프랑스 면접은 만약 불어 자격증이 없으시면 영어로, 있으시다면 불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몇 가지 질문을 물어 볼 수 있어요. 언어에 조금 자신 없다면 정말 간단하게만 준비해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. 두 번째 대사관 약속 관련해서는 캠퍼스 프랑스 면접 전 일정을 잡아놓는 게 좋아요. 비자는 확실히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편하니 미리 찾아보고 서류들 준비되면 바로 준비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.

항공권 가격은 대한항공, 아시아나, 에어프랑스 편도(1월/6월) 두개 팔십, 팔십팔만원정도 / 왕복(9월/1월)은 총 백육십만원 정도였던것 같아요.

나. 필요 물품(짐 꾸리기)

짐에 관해서는 다른 학생들이 적어놓은 리스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프랑스는 수건이 비싸니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기숙사가 웬만하면 추우니까 전기장판 혹은 전기담요는 꼭 챙기시는 걸 추천합니다.

2. 파견국 및 파견 대학

가. 파견 국가의 언어, 문화, 물가

저는 프랑스 보르도 몽테뉴 대학으로 파견을 갔는데, 보르도 시내에서 트램으로 20분정도 거리의 페썩(pessac)에 위치한 학교였어요. 페썩은 시골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한 30대 정도부터의 프랑스인들은 대부분 아주 조금의 영어는 할 줄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물론 프랑스인들의 영어발음이 좀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으니 웬만하면 프랑스어를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. 그리고 파리는 대부분의 식당, 가게 점원들이 영어를 할 줄 알고, 아시안들에게는 대부분 영어를 먼저 써주는 편입니다.

물가는 식당과 비교해서는 장보는 것이 더 싼 편이고, 보르도 기준 슈퍼 물가는 한국보다 조금 싼 편인 것 같아요. 파리는 확실히 교통비부터 식당, 슈퍼 모든 게 조금씩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.

나. 파견 대학

나-1. 대학 선택 이유

우선 저는 지원당시 델프 B1까지 탄 상태였기 때문에 어학과정만 지원 가능했고, 어학과정이 있는 두 학교인 보르도 몽테뉴 / 프랑슈 콩테 대학 중에 고민했어요. 1.보르도가 조금 더 큰 도시라서 2. 남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남부여행하기 좋을 거라 생각해서 보르도 몽테뉴 대학을 선택했습니다. 후기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학교가 시내에 위치한 것은 아니지만 트램 20분만 타면 시내에 갈 수 있고, 시내에 영화관, 독립영화관, 미술관 등등 문화시설 같은 것도 잘 되어있어서 만족했어요.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지도상으로 보르도가 남부에 있긴 하지만, 기차가 남부 지역(니스, 칸, 마르세유 등등)과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기차 편이 파리에서 환승하는 기차였습니다. 그래서 같은 이유로 보르도를 고민 중이라면 추천하지 않아요. 보르도에 공항이 있긴 한데 가본 적이 없어서 한번 따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비행편이 기차보다 싼 때가 있고 트램을 한번 갈아타야하긴 하지만 그리 불편하진 않아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나-2. 공항 - 학교

저는 인천-파리 샤를 드 골 공항 행 비행기를 타고, 파리 몽파르나스 역에서 보르도 생장 역 행 기차를 타고 보르도에 갔습니다. 역에서는 짐이 많아서 우버를 불러서 학교로 갔어요. 파리에서 보르도로 가는 기차는 제가 알기로는 몽파르나스 역-생장 역 밖에 없습니다. 기차편도 꽤 많고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서 편하게 왔다갔다 했어요. 기차표는 sncf 앱에서 예매했고, 가격은 항상 천차만별이라서 잘 알아보고 예매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.

나-3. 수강신청, 수업내용(프로그램 과정)

수강신청은 따로 안했고, 학기 시작하기 전에 데플르 어학원에서 레벨테스트 메일이 오

고, 온라인으로 테스트 후 결과에 따라 반이 정해져요. 오티 날에 반이 공지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혹시 반을 바꾸고 싶으면 선생님들께 얘기하고 자격증 있으면 메일로 보내고 하면 아마 바꿀 수 있을 거예요. 저는 레벨테스트로 F2N2(A2)반에 배정되었는데, B1자격증 보내드리고 첫 수업 전에 DUEF3(A2~B1)반으로 변경되어서 첫 학기는 DUEF3반에서 공부하고, 다음 학기에 바로 다음반인 DUEF4(B1~B2)반에 올라가 수업을 들었습니다. 첫 번째 학기 때는 옵션 수업을 개강하고 나서 바꿀 수 있었는데, 두 번째 학기에는 개강 전 원하는 옵션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메일이 오고, 그거에 따라 반이랑 옵션수업이 정해지는 것 같았어요. 텔프는 두 번째 학기가 거의 끝날 때 쯤 데플르에서 B2 시험쳤고 합격을 했는데, 데플르에서 치는 것보다 보르도에 있는 다른 시험기관(뉴딜, 알리앵스)이 다들 더 쉽다고 해서 다른 시험기관에서 치는 것을 추천해요. DUEF3반은 잘 모르겠는데 DUEF4반은 텔프 준비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Compréhension oral, Production écrit, Expression Oral 수업이 특히 도움이 되었어요.

나-4. 기숙사(홈스테이, 셰어룸 등)

첫 번째 학기는 크루스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. 공지되는 것과 같이 므슈 다비드 카자나브에게 메일 보내고, 기숙사 확정되고 아직 비자가 준비가 안 되었어서 기숙사비 전액 지불했던 것으로 기억해요. 크루스는 village5에 배정되었고, 4인 이서 부엌을 공유하고 각자의방이 나눠지는 형태였어요.

두 번째 학기는 데플르 측과 의사소통이 잘 안돼서 결국 크루스 기숙사를 못 구했어요. 스투데아(폴로), 엘롬(사설 기숙사) 등등이랑 크루스랑 연결해주는 다른 유학원도 많이 찾아봤는데 출국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준비했어서 결국 앞의 방법으로는 못 구했고, 프랑스 부동산과 연락하는 사설 유학원을 찾아서 사설 기숙사를 구했습니다. 가격도 비싸고 유학원, 부동산비까지 돈이 여기저기 많이 나가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. 근데 메뉴얼대로만 잘 하면 크루스 웬만하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.

나-5. 교내·외 활동

저는 따로 교내외 활동을 신청해서 하진 않았어요. 첫 학기는 거의 어학원 친구들과만 애기했고, 두 번째 학기 때 따로 프랑스 친구가 생겨서 몇 번 만나고 같이 놀고 했습니다. 프랑스인과 얘기해보는 것이 확실히 듣기에 특히 도움이 되니 프랑스인 친구 사귀는 것을 추천합니다..

나-6. 꿀팁(학교생활, 일상생활, 음식, 교통 등)

우선 여행을 엄청 많이 까지는 안다니더라도 sncf 앱에서 까흐트 준(cartre jeune) 등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요. 저는 까흐트 준으로 꽤나 기차 요금을 절약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

보르도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역시 트램이 가장 편할 거예요. 특히 몽테뉴 대학이 있는 곳은 몽테뉴 몽테스키유 역/ 유니텍 역에서 트램 B 타면 15분 정도 거리의 마트(auchan

talence gambetta), 공부하기 좋은 스타벅스(starbucks talence), 그리고 20분정도 가면 시내로 갈 수 있습니다. TBM앱으로 저는 학생 할인해주는 10 ticket tarif réduit 구매해서 사용했어요.

도서관은 데플르와 가까운 도서관 두 곳에 많이 갔고, 시설 좋고 넓으니 많이 가보는 것을 추천해요. 스타벅스 딸링스, 스타벅스 빅토르 위고 보르도 그리고 콜럼버스 카페 앤 코 보르도에 많이 갔어요. 콜럼버스는 가격도 싸고 머핀 종류가 엄청 많아서 가보는 것을 추천해요.

마트는 앞에서 얘기한 오성 딸링스 경베파를 제일 많이 갔지만 처음 입주할 때 부엌용품, 침구 등등을 사기는 무리가 있어서 auchan hypermarché bordeaux mériadeck에 가보는 걸 추천합니다. 보르도에서 가장 큰 마트 중 하나예요. 그리고 시내에 있는 한인마트인 ppoppo 마트, asia shop 에도 많이 갔습니다.

음식은 확실히 외식, 배달 보다는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파스타/냄비밥, 한식/라면/샌드위치/스튜 를 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.

어학원 생활에 관해서는 사실 그룹이 어떻게 배정되는 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 첫 학기에는 그룹이 모두 친하진 않았고 각자 무리끼리 다니고 말하는 경향이 컸어요. 두 번째 학기 때는 그룹친구들 전체가 다 친해져서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. 하지만 그룹 분위기가 안좋더라도 잘 맞는 친구사귀고 같이 놀러가고 하면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아시아 쪽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서 편하게 다가가 보는 걸 추천해요..! 그리고 같은 반에 한국인 친구가 있으면 안심이 되긴 하지만 어디 놀러가거나 밥먹을 때는 한국인 친구 말고 외국인 친구들과 나가서 프랑스어만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.

3. 여행 정보(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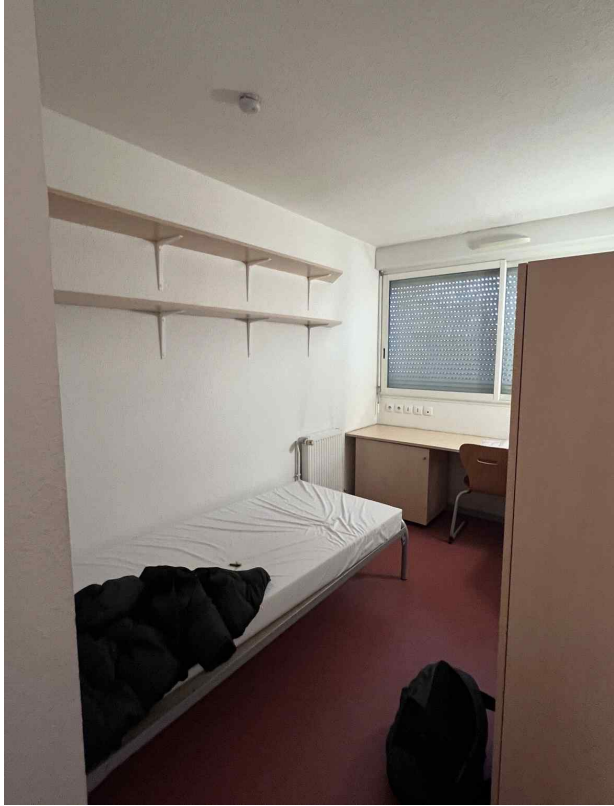
저는 여행을 엄청 많이 다니진 않았고, 프랑스는 파리 여러 번, 몽펠리에, 마르세유, 니스, 스트라스부르, 콜마르 / 다른 나라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여행했어요. 파리는 다들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, 몽펠리에에는 한적하고 조용해서 / 마르세유는 맛있는 해산물과 해안가 / 니스는 마티스박물관 샤갈박물관, 예쁜 해안가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성당, 박물관들, 건축물들, 음식들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웠어요. 스트라스부르와 콜마르는 당일치기였어서 별로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사실 프랑스 기준 1학기(9월~12월)은 바캉스가 많이 없고, 2학기(1월~5월)에 바캉스가 많고 4월5월 날씨가 여행하기에 너무 좋아서 한국기준 1학기, 프랑스 기준 2학기에 교환학생 가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.

4. 후배들에게 한마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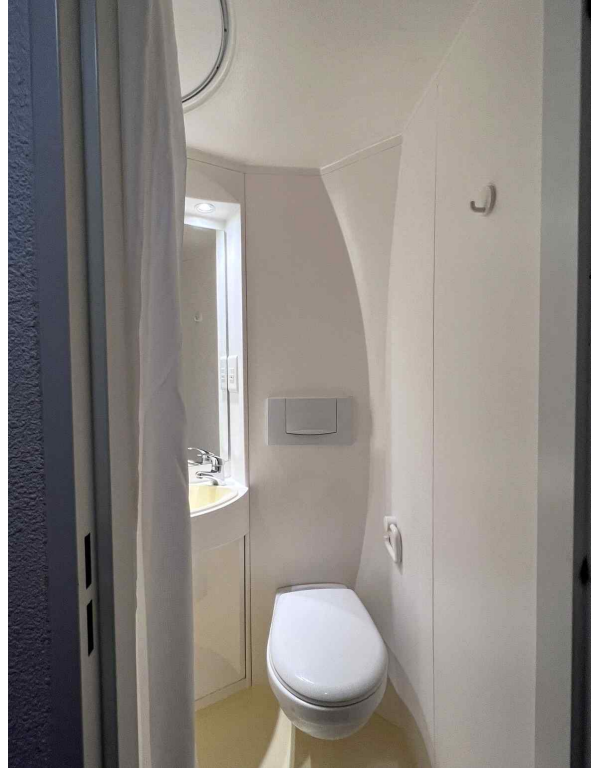
사실 프랑스 교환학생을 가기 위한 행정처리, 그리고 완전히 낯선 곳에서 혼자 적응하는 경험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어학원에서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얘기하면서 한국에서 주로 얘기하는 정상적인 루트를 굳이 안 따라도 되겠구나하는

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.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로 나와서 본인이 지금까지 만나오던 사람들과는 문화 등등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프랑스 교환학생(파리 제외)은 여행안가고 외식, 쇼핑만 자제하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기숙사비가 엄청 싸고, 어학원 학비도 들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값 절약만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대학생일 때 한번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!

5. 사진 자료 첨부(대학교 전경, Classmate, Activities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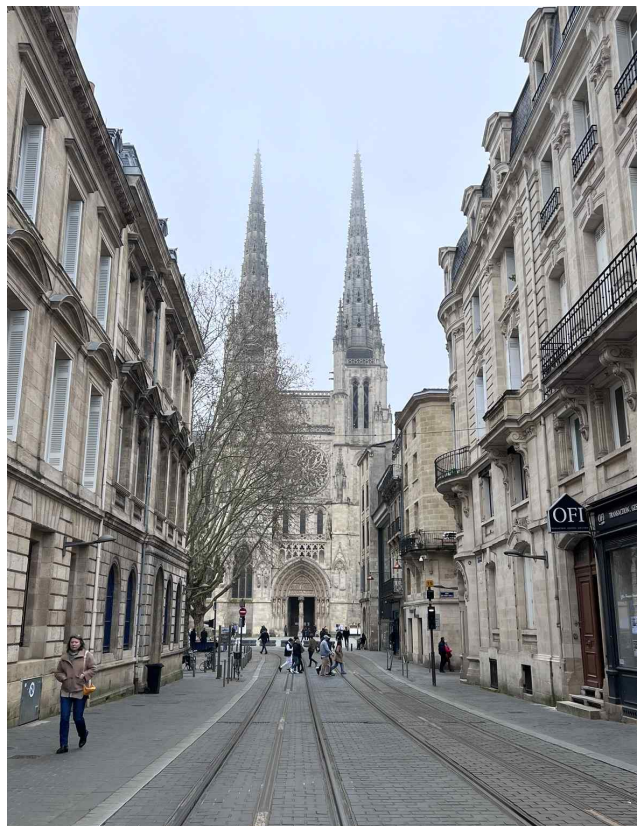
크루스 기숙사 방



크루스 기숙사 방 화장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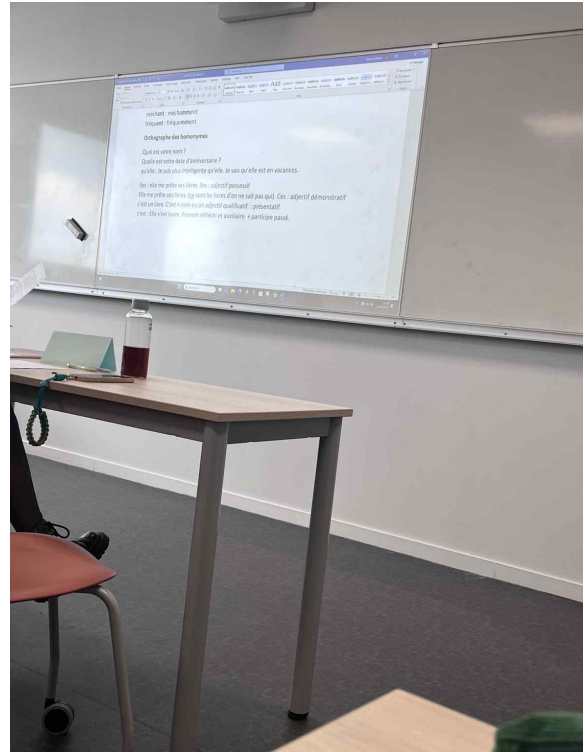
크루스 기숙사 공동주방



보르도 시내



데폴르 어학원 건물과 도서관 건물



어학원 강의실